님의 침묵 내신 문제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임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 지침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 경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A]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B]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임은 갔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 임의 침묵을 ㉤ 휩싸고 돕니다.

01

윗글의 후반부에서 화자가 취하고 있는 지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며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려 한다.
② 이별의 고통을 수용하며 관계의 영속성을 회복하려 한다.
③ 과거의 기억을 정화하며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려 한다.
④ 운명적인 비극을 긍정하며 절대적 고독을 감내하려 한다.
⑤ 타인과의 거리를 조율하며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려 한다.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옛 맹세'가 '티끌'이 된 것은 과거의 약속이 현재적 효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② '첫키스의 추억'은 화자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③ '향기로운 말소리'와 '꽃다운 얼굴'은 임의 부재를 더욱 감각적으로 부각하는 요소이다.
④ 화자가 슬픔을 희망으로 옮긴 것은 이별을 사랑의 완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화자의 억눌린 감정이 분출되는 매개체이다.

03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기존의 상태나 경계를 물리적으로 타파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함.
② ㉡: 사물의 상태나 진행 방향을 가리키거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표.
③ ㉢: 옳지 않은 일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단속함.
④ ㉣: 사물의 현상이 비롯되는 근본적인 발생지 또는 감정의 발원지.
⑤ ㉤: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빈틈없이 둘러싸거나 전체를 장악함.

0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증대되는 속성을 지닌 매개체이다.
② ⓑ: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충격과 비탄을 형상화한다.
③ ⓒ: 슬픔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화자의 심리적 방어 기제이다.
④ ⓓ: 이별의 원인을 화자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자아 성찰의 결과이다.
⑤ ⓔ: 임의 거부 의사를 화자가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서적 단절이다.

0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불교의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은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한용운은 이러한 종교적 진리를 문학적 역설로 승화시킨다. 그는 이별을 단순한 상실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임의 '침묵'을 통해 임의 존재를 더욱 강렬하게 체험하는 계기로 삼는다. 여기서 '침묵'은 부재(不在)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충만함의 역설적 표현이 된다.

①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은 회자정리의 원리를 삶의 필연적 조건으로 수용한 결과겠군.
②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 태도는 거자필반의 논리를 통해 이별의 비극성을 극복하려는 의지겠군.
③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진술은 물리적 이별을 부정함으로써 임과의 영적 합일을 지속하려는 역설이겠군.
④ '사랑의 노래'가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것은 침묵 속에 내재된 임의 실재를 감각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겠군.
⑤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에 들이붓는' 행위는 회자정리의 슬픔을 거자필반의 확신으로 치환하는 과정이겠군.

06

윗글의 '임의 침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의 간절한 부름에 대해 임이 보이고 있는 거부의 몸짓이다.
② 이별의 원인이 화자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임의 무언의 질책이다.
③ 현실적 이별의 상황을 상징하면서도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품은 상태이다.
④ 화자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서, 임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절대적 장벽이다.
⑤ 임이 화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대변하는 침묵이다.

07

윗글 전체에서 화자의 정서 및 태도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별에 대한 경계 → 뜻밖의 이별로 인한 비탄 → 슬픔의 희망적 전이 → 재회에 대한 확신
② 임에 대한 원망 → 이별의 필연성 인정 → 고독의 내면화 → 절대자에 대한 귀의
③ 과거의 행복 추억 → 상실감으로 인한 절망 → 현실 도피적 환상 → 허무주의적 체념
④ 이별의 슬픔 → 임의 부재 확인 → 슬픔의 힘에 굴복 → 임에 대한 증오
⑤ 재회에 대한 갈망 → 이별의 고통 → 슬픔의 인내 → 운명에 대한 순응

08

윗글의 마지막 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각적 심상을 청각적 심상으로 전이시켜 임의 부재를 강조하고 있다.
② 역설적 상황 설정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임과의 이별이 영원함을 선언하고 있다.
④ 감탄사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격정적인 슬픔을 표출하고 있다.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09

윗글의 '사랑'에 대한 화자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보편적인 일로서 이별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② 슬픔이라는 감정적 에너지를 새로운 가치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다.
③ 임의 침묵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능동적으로 포용하게 만드는 근거이다.
④ 만남과 이별의 순환적 원리를 초월하여 영원한 결합을 완성하는 수단이다.
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깨뜨려질 수 있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다.

10

윗글에서 화자가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별이 가져다준 뜻밖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현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② 임과의 재회가 우주적 섭리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③ 슬픔의 감정을 억제하지 않고 눈물의 원천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④ 임의 침묵이 곧 임의 거절이 아니라 임의 깊은 배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⑤ 과거의 맹세가 티끌이 되어 사라진 현실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11

[A]와 [B]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제시된 감정적 결단이 [B]에서 논리적 확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② [A]의 개인적 고뇌가 [B]에 이르러 사회적 연대 의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③ [A]의 비관적 전망이 [B]의 낙관적 태도와 충돌하며 내적 갈등을 빚고 있다.
④ [A]에서 임의 부재를 수용하고, [B]에서 임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순을 보인다.
⑤ [A]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B]는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고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용운의 시에서 '임'은 연인뿐만 아니라 '조국', '불성(佛性)', '진리' 등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식민지 시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임의 침묵'은 국권 상실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 회복될 국권에 대한 믿음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시어로 형상화하며 저항적 의지를 드러낸다.

①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간' 행위는 국권 상실의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겠군.
② '차디찬 티끌이 된 옛 맹세'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과 약속을 상징하겠군.
③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에 들이붓는' 것은 절망적 현실을 독립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하려는 노력이겠군.
④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 세계로 도피하려는 화자의 의지겠군.
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조국 광복을 염원하는 화자의 멈출 수 없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겠군.

13

윗글의 '나는 향기로운 임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임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그 효과가 가장 유사한 것은?

1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② '황금의 꽃'은 임과 함께했던 과거의 찬란하고 견고했던 가치를 상징한다.
③ '날카로운 첫키스'는 임과의 만남이 화자에게 준 강렬하고 충격적인 기억이다.
④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은 화자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의 과잉 상태를 의미한다.
⑤ '정수박이'는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도달한 가장 낮은 겸손의 자세를 상징한다.

15

윗글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한 인식의 경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별의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얻게 되는 도덕적 성숙의 단계
② 현실의 결핍을 언어적 유희로 극복하려는 심미적 태도의 완성
③ 부재하는 임을 현존하는 존재로 치환하는 인식의 혁명적 전환
④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종교적 구복으로 해결하려는 신앙적 자세
⑤ 인간사의 덧없음을 깨닫고 자연의 섭리에 귀의하려는 무욕의 상태

님의 침묵 내신 문제지 · 정답 및 해설

01 표현상 특징

정답: ② 이별의 고통을 수용하며 관계의 영속성을 회복하려 한다.

[출제의도]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재회를 확신하는 화자의 태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이별의 고통을 수용하며 관계의 영속성을 회복하려 한다.'는 후반부의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와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화자는 이별이라는 현상을 영원한 단절이 아닌 새로운 만남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임과의 관계를 지속시키려 한다.

[오답 풀이]

① 존재의 근원 탐구는 이 시의 핵심인 사랑의 회복과는 결이 다른 철학적 지향이다.

③ 화자는 평정심 유지가 아니라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역동적 태도를 보인다.

④ 비극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극복하여 새로운 희망을 창출하고 있다.

⑤ 타인과의 거리 조율은 관계의 합일(合一)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진술이다.

02 내용 이해

정답: ④ 화자가 슬픔을 희망으로 옮긴 것은 이별을 사랑의 완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적인 인과 관계와 화자의 논리적 판단 근거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④ '화자가 슬픔을 희망으로 옮긴 것은 이별을 사랑의 완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는 부적절하다. 지문에서 슬픔을 희망으로 옮긴 이유는 '이별을 눈물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 이별 자체를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황금의 꽃'이 '티끌'이 되었다는 것은 굳건했던 맹세가 허망하게 변했음을 나타낸다.

② '지침을 돌려 놓고'라는 표현은 삶의 이정표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임의 감각적 속성을 나열하는 것은 현재 그 대상이 곁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⑤ 사랑의 노래가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내면의 정서가 외적으로 표출됨을 의미한다.

03 어휘의 의미

정답: ① ㉠: 기존의 상태나 경계를 물리적으로 타파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함.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사전적 정의와 비교하여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① ㉠ '깨치고'는 '푸른 산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뚫고 나아가는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지만, 이를 '물리적으로 타파'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 '깨치고'는 '헤치고' 혹은 '가르고'의 의미에 가까우며, 물리적 파괴보다는 공간적 이동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오답 풀이]

② '운명의 지침'에서 지침은 방향을 가리키는 바늘이나 기준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경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에서 경계는 미리 조심한다는 의미로 문맥과 일치한다.

④ '눈물의 원천'에서 원천은 눈물이 시작되는 곳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침묵을 휩싸고'에서 휩싸고는 대상을 완전히 감싸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04 밑줄 설명

정답: ② ⓑ: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충격과 비탄을 형상화한다.

[출제의도]

시구의 상징적 의미와 화자의 정서적 반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② ⓑ '새로운 슬픔'은 앞 구절의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와 호응하여, 예상치 못한 이별로 인해 화자가 겪는 강렬한 정서적 충격을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 '옛 맹세'는 '티끌'이 되었으므로 가치가 훼손된 상태이다.

③ ⓒ '새 희망'은 슬픔을 옮겨온 창조적 결과이지, 슬픔을 단순히 줄이려는 방어 기제가 아니다.

④ ⓓ '다시 만날 것'은 회자정리의 논리를 거꾸로 적용한 믿음이지 자아 성찰과는 무관하다.

⑤ ⓔ '임의 침묵'은 임의 존재 방식이지 화자에 대한 거부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05 [보기] 종합 감상

정답: ④ '사랑의 노래'가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것은 침묵 속에 내재된 임의 실재를 감각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겠군.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의 역설적 구조와 종교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④ '사랑의 노래'가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것은, 〈보기〉에서 설명하듯 침묵을 부재가 아닌 충만함으로 인식하고 그 역설적 실재를 노래로 형상화하는 것이지, 이를 '감각적으로 확인'하려는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침묵은 감각을 넘어선 초월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만남 속에 이별이 내포되어 있다는 인식은 회자정리의 반영이다.

② 이별 속에 재회가 내포되어 있다는 믿음은 거자필반의 반영이다.

③ 보냈으나 보내지 않았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문학적 역설이다.

⑤ 슬픔(이별)을 희망(재회)으로 바꾸는 것은 두 원리의 논리적 연결을 보여준다.

06 상징/소재 해석

정답: ③ 현실적 이별의 상황을 상징하면서도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품은 상태이다.

[출제의도]

핵심 시어인 '침묵'의 다층적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③ '임의 침묵'은 표면적으로는 임이 곁에 없어 말을 건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의미하지만, 화자가 그 침묵을 노래로 감싸고 돌며 '보내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재회의 가능성을 내포한 역설적 공간이다.

[오답 풀이]

① 임은 화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침묵으로 변한 것이다.

② 질책의 의미는 지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④ 화자는 침묵을 극복하거나 파괴하려 하지 않고 노래로 '휩싸고' 돌며 수용한다.

⑤ 임의 사정을 설명하는 도구로 침묵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07 화자 정서 변화

정답: ① 이별에 대한 경계 → 뜻밖의 이별로 인한 비탄 → 슬픔의 희망적 전이 → 재회에 대한 확신

[출제의도]

시의 전개 과정에 따른 화자의 정서적 추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6행에서 '경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뜻밖의 일이 되고'를 통해 경계와 비탄을, 7행에서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에'를 통해 전이를, 8~9행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를 통해 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원망이나 절대자 귀의는 지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희망을 만든다.

④ 슬픔에 굴복하거나 증오하는 태도는 지문과 정반대된다.

⑤ 화자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힘을 옮기는 주체적 태도를 보인다.

08 서술상 특징

정답: ② 역설적 상황 설정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다.

[출제의도]

시의 결미에 나타난 표현 기법과 그 효과를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② 마지막 행에서 '사랑의 노래'가 '임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것은, 소리(노래)가 소리 없음(침묵)을 감싸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를 통해 임이 침묵하는 상황에서도 화자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답 풀이]

① 심상의 전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임의 부재보다 사랑의 지속을 강조한다.

③ 이별의 영원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④ 마지막 행에는 감탄사가 없으며, 어조는 오히려 차분하고 의지적이다.

⑤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은 마지막 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09 개념 집중 분석

정답: ④ 만남과 이별의 순환적 원리를 초월하여 영원한 결합을 완성하는 수단이다.

[출제의도]

지문 전반에 나타난 '사랑'의 속성과 화자의 인식을 정밀하게 해부한다.

[정답 풀이]

④ '만남과 이별의 순환적 원리를 초월하여 영원한 결합을 완성하는 수단이다.'는 부적절하다. 화자는 순환적 원리(회자정리 거자필반)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믿음'의 근거로 삼아 이별 속에서 재회를 꿈꾸는 것이다. 즉, 원리 안에서 움직이지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라는 구절에서 보편성과 이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②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을 만드는 동력이 사랑이다.

③ 사랑의 노래가 침묵을 휩싸고 도는 것은 능동적 포용의 모습이다.

⑤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줄 아는 까닭에'에서 사랑은 관리하지 않으면 깨질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10 내용 이해(조건)

정답: ② 임과의 재회가 우주적 섭리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출제의도]

화자의 역설적 선언 뒤에 숨겨진 논리적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낸다.

[정답 풀이]

② 화자는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만남과 이별의 순환 원리(섭리)를 신뢰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물리적으로는 떠났어도 심리적·영적으로는 '보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능동적 태도를 보인다.
③ 화자는 슬픔을 눈물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을 '사랑을 깨치는 것'이라며 경계했다.
④ 침묵을 배려로 해석하는 내용은 지문에 없다.
⑤ 맹세가 티끌이 된 것은 상실의 상황이지, 보내지 않은 근거가 될 수 없다.

11 전개/구성

정답: ① [A]에서 제시된 감정적 결단이 [B]에서 논리적 확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출제의도]

지문의 핵심 전환점인 [A]와 결론부인 [B]의 유기적 연결성을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내린다. 이러한 정서적 전환을 바탕으로 [B]에서는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는 보편적 원리에 근거한 논리적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② 사회적 연대 의식은 이 시의 주제와 거리가 멀다.
③ [A]와 [B]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시상을 전개한다.
④ [B]는 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⑤ [A]는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결단이며, [B]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다.

12 [보기] 외적 준거

정답: ④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식민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 세계로 도피하려는 화자의 의지겠군.

[출제의도]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품의 시대적 함의와 화자의 저항 의지를 분석한다.

[정답 풀이]

④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비극적 현실(식민지) 속에서도 조국(임)에 대한 마음을 지키며 국권 회복의 의지를 다지는 저항적 선언이다. 〈보기〉에서도 이를 '저항적 의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임이 떠난 것은 국권 상실의 상황으로 해석 가능하다.
② 맹세의 훼손은 민족적 약속의 파기로 볼 수 있다.
③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독립 의지의 승화로 적절하다.
⑤ 사랑의 노래는 광복에 대한 열망의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

13 표현상 특징(역설)

14 내용 이해(디테일)

정답: ⑤ '정수박이'는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도달한 가장 낮은 겸손의 자세를 상징한다.

[출제의도]

시어의 사전적 의미와 시적 상징성을 정밀하게 대조한다.

[정답 풀이]

⑤ '정수박이'는 머리의 꼭대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다'는 것은 희망의 가장 높은 곳 혹은 핵심에 슬픔의 에너지를 집중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를 '가장 낮은 겸손의 자세'로 해석하는 것은 단어의 물리적 위치(머리 위)와 상징적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산빛(여름/생명)에서 단풍(가을/소멸)으로의 변화는 이별과 호응한다.
② 황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한다.
③ '날카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충격적 기억임을 뒷받침한다.
④ '걷잡을 수 없는'은 통제 불능의 상태를 잘 나타낸다.

15 종합적 이해

정답: ③ 부재하는 임을 현존하는 존재로 치환하는 인식의 혁명적 전환

[출제의도]

시 전체의 논리 구조를 통합하여 화자가 도달한 최종적인 인식의 층위를 파악한다.

[정답 풀이]

③ 화자는 '임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선언을 통해, 물리적 부재(갔음)를 주관적 현존(보내지 않음)으로 뒤집는다. 이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희망의 에너지로 바꾸어 임의 침묵을 사랑의 노래로 감싸 안는 인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도덕적 성숙보다는 사랑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② 이는 언어적 유희(말장난)가 아니라 진지한 존재론적 결단이다.
④ 구복(복을 빎)보다는 스스로 희망을 만드는 주체적 의지가 강하다.
⑤ 무욕(욕심 없음)의 상태라기보다 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지속이다.